Specialty, 신규루트 개발 주력

자산가치 향상 위해 맹목적 M&A 확대 ... 통합 다른 후유증 우려

Great Lakes Chemical(GLC)은 수요기업들의 가격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핵심 플라스틱 첨가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GLC의 신제품 매출비중은 1998년 5%에서 2003년 19%로 14%p 상승하나 마진압박이 심한 사업을 중심으로 코스트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비교적 경기주기의 영향을 덜 받는 BioLab(Pool Care 제품) 등 소비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Lime-O-Sol 및 A&M Cleaning Products 등 소비재기업을 인수했다. BioLab 사업은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경영, 신제품 개발 및 생산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LC는 소비재 사업 매출비중을 2002년 39%에서 2005년 5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생활용품 사업 인수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GLC는 앞으로 마진이 회복되고 현금흐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ytec Industries 또한 판매부 애널리스트에 의해 시가총액 5억달러 이하로 평가절하됨에 따라 과거 18개월 동안 투자펀드 및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구매부 투자기관에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Arch는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통해 기관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여러 애널리스트들과의 접촉에 성공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직 임원들도 1대1 회담 등을 통해 투자기업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으며 투자기업들 역시 CEO 및 CFO와의 접촉을 선호하고 있다.

Arch는 또한 투자기업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자사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는 애널리스트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장여건 및 흐름에 대한 정보나 전망을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Arch는 지속적이고 건실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핵심사업인 윤활유 사업에 있어서 기술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애널리스트 및 투자기업들에게 회의요청안을 송부하기 시작했으며 기관투자기업들과의 접촉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특수화학사업 통합기업

접착제/실란트	3M, Avery Dennison, Forbo Holding, GE, H.B. Fuller, Henkel, ICI, Rohm & Haas, Atofina
농화학	BASF, Bayer, Dow Chemical, DuPont, FMC, Monsanto, Syngenta
전자화학	Air Products, Arch Chemicals, Cabot Microelectronics, Clariant, DuPont, MacDermid, Praxair, Rohm & Haas
I&I Cleaning Chemicals	Acuity Brands, Ecolab, Gogo International Holdings, Johnson Diversey, NCH, Procter & Gamble
페인트/코팅	Akzo Nobel, BASF, Benjamin Moore, DuPont, Ferro, ICI, Masco, PPG Industries, Rohm & Haas, RPM, Sherwin-Williams, SigmaKalon, Valspar
플라스틱 첨가제	Akzo Nobel, Ciba Specialty Chemicals, Clariant, Crompton, Cytec Industries, Dow Chemical, DuPont, ExxonMobil Chemical, Ferro, Great Lakes Chemical, Rhom & Haas
수처리제	Arch Chemicals, Ashland/Drew Industrial, Buckman Laboratories, GE, Great Lakes, Ondeo Nalco

특수화학기업들은 대다수 성장투자기업(Growth Investor)보다 가치투자기업(Value Investor) 및 펀드기업을 선호하고 있는데, 투자기업들이 배당률이 높거나 PER이 낮은 주식 또는 주가 순자산비율(PBR: Price Book

Ratio)이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른바 GARP(Growth-at-a-Reasonable-Price) 투자기업들도 특수화학기업들의 타겟으로 떠오르고 있다. GARP 투자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가치투자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식매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특수화학기업들은 또한 지난 M&A 피크기에 과도한 인수액을 부담한데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화학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산가치를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인수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특수화학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중대형기업들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시가총액 10억-30억달러에 달하는 중견기업들의 인수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특수화학 M&A 시장은 민간투자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점차 화학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화학기업들은 오랜 내부적인 구조조정, 수요둔화 및 추가하락으로 M&A 시장에서 소외돼 왔으나 이후 다시 M&A 물결에 합류하고 있어 2004-05년에는 화학기업들의 인수활동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14>